

## ECONOMY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 광주 동구·강진군, 민간 주도로 골목상권 활력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모집  
내달 13일까지...업력 45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 지난해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중기부, 동네상권발전소 신규 선정

네트워크형 포함...청년창업가 상권화 도전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축제 연계 홍보 예고

지역별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 상업화에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광주 동구와 전남 강진군이 신규 선정됐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상권 구축·발전전략 수립에 나서는 이번 사업이 골목상권의 또 다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주민이 협업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전국 50개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전략수립형과 네트

워크형 2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전략수립형’은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과 소통하며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지원금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골목상권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 약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게 목표로,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전략수립형에는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 서

귀포시 등 9곳이 선정됐다.

네트워크형에는 광주 동구와 전남 강진군을 비롯해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명상권 청년창업가를 중심으로 ‘동명동 브랜드 타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지역 핫플로 꼽히는 동명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유독 적다. 현재 300여곳의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0% 미만이다. 대부분 개인 창업이 주를 이룬다.

동구는 청년 창업가와 주민의 협업모델인 골목리더 ‘동명크루’를 구제화 하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이를 한 데 묶어 상권화

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해 강진을 서문길 일원을 중심으로 상인회를 결성, 이를 주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도전한다. 현재 강진군 내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2월 결성된 ‘강진상가번영회제2구역’ 1곳 뿐이다.

연합회 측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함께 지역 축제를 연계, 홍보·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동네상권발전소의 높은 경쟁률을 보면서 민간주도의 골목상권 기획과 조직화를 위한 현장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

## 금호타이어, 협력사 간담회...“ESG경영 강화”

설비구매 협력사 100개사 대상 정책 등 공유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협력사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경영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박태금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상무와 주요 협력사 100개사 대표 및 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공개 입찰 프로세스(K-POS 시스템)와 주요 구매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ESG경영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우수 협력사로 소니드, 한일

종합기계, 덕암메카(구매 부문)와 다이나믹디자인, 소니드(ESG 부문)를 각각 선정했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통해 ESG경영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금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화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바꿔 보험금 청구한  
**성형해양**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전횡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범행으로 타낸 가족  
사망보험금으로 호화 생활하는  
**엄은혜 여인**

환자를 유인에 크게 영향  
노리는 보험금 권위 조작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인상 폭탄 맞고 쓰러진  
**신랑한 보험가입자**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재난이벤트  
가일하고  
발견이벤트  
신고하고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적합 금액에 따라 지급

**보험사기 반드시 잡히고  
처벌은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 |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전남농업기술원, 카테킨 함유 ‘기능성 미나리’ 개발

소비트렌드 맞춘 고기능성 상품...항산화 능력 2.7배↑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차(茶) 농축액을 활용해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함유된 기능성 미나리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가 다양화·고급화되는 흐름에 발맞춰, 고기능성 채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7.1%가 기능성 표시가 된 신선 농산물 구매 의향을 보였으며, 특히 채소와 과일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차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능성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카테킨 미나리’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녹 품종의 첫잎으로 제조한 차 농축액에 미나리를 일정 시간 침지·흡수시켜 제조한 것이다. 처리 전 미나리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은 3.6배, 카테킨류는 18.8배, 항산화 능력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술은 열안정성, 해독 등의 효능을 지닌 미나리에 차의 항산화 성분을 더해 건강 기능성을 한층 강화한 사례로, 기능성 농산물은 물론 건강식품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기술의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향후 관련 기업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 및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기술 개발은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차 농축액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 트렌드에 맞춰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ws1@

## 삼성전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급자 선정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 공급  
4년간 누적 6만가구 설치

삼성전자는 4년 연속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냉방 기기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1만8000여가구에 2025년형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삼성전자의 에어컨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갖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흐르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필터를 탑재해 필터 교체 비용 부담을 낮췄다. 집 안 구석구석에 강력한 냉기를 빠르게 시원하게 채워주는 ‘패스트 쿨링’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6만여 가구에 고효율 에어컨을 공급해 왔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심화하는 상황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삼성전자의 고효율 에어컨을 공급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